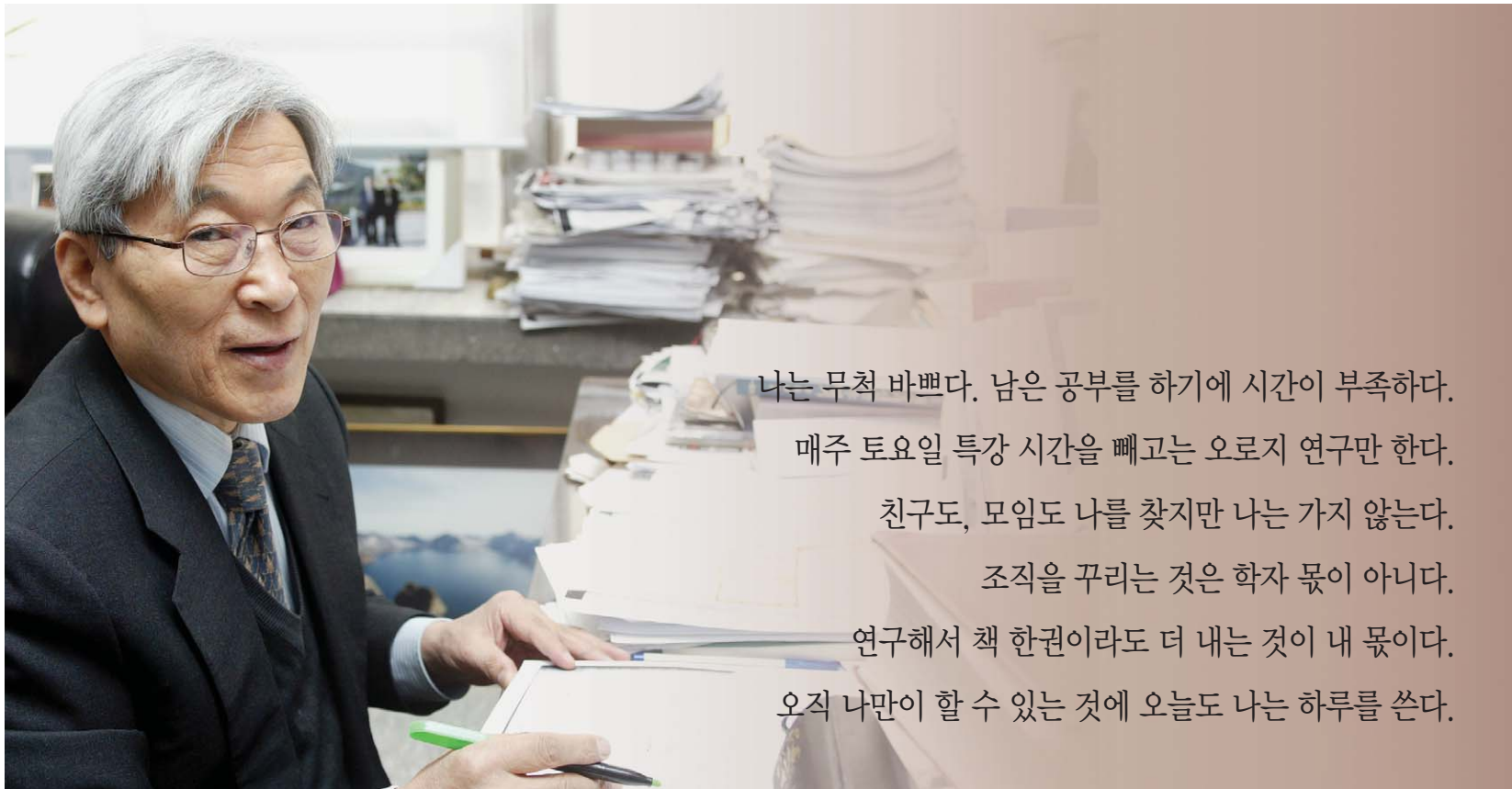


교리로 철저히 '무장' 돼야 한국불교 세계화 가능



나의 20 나의 불교학

오형근 교수

나는 무척 바쁘다. 남은 공부를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
 매주 토요일 특강 시간을 빼고는 오로지 연구만 한다.
 친구도, 모임도 나를 찾지만 나는 가지 않는다.
 조직을 꾸리는 것은 학자 몫이 아니다.
 연구해서 책 한권이라도 더 내는 것이 내 몫이다.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에 오늘도 나는 하루를 쓴다.

오형근 교수는 1932년 출생해 유식학과 함께 평생을 살아왔다. 현 동국대 명예교수 겸 대승불교연구원 원장이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설립 주역이기도 한 그는 중국 사회과학원 등 한중불교 교류에 앞장서왔다.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유진 스님(동국대), 수산 스님, 묘주 스님, 김사업 박사, 김치온 박사 등 다수가 논문지도를 받고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18세 되던 해. 6.25 전쟁 때다. 산중 사찰로 피란을 갔다. 그 인연으로 나는 법성(法性)이라는 이름을 얻어 불가에 귀의했다. 절에 들어가 생활하다 보니 출가자라면 누구나 포교에 힘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포교가 아닌 의식에 치중한 당시 스님들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다. 특히 큰스님 한분을 두고 이리저리 모시는 행태는 옳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법사가 때 불법을 널리 알리겠다고. 하지만 교리를 모르고는 수행할 수 없어 나는 강원을 주로 다니며 공부했다.

출가자였던 나는 동국대 수학 시절 비구·대처 싸움을 피해 승복 아닌 양복을 입고 다녔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속퇴하게 됐지만 내 원은 변함이 없었다. 그 원은 대학원 전공으로 이어졌고 <아미타승 연구>를 주제로 국내 최초 유식학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는 박사, 교수 시절을 지나 회수(回壽: 77살)가 된 지금도 연구를 그치지 않고 있다.

제자들에게 나는 곧잘 전공과 꿈을 묻는다. 전공이 뭐냐 물었을 때 우물쭈물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대학원 외에서도 우왕좌왕한다면 학자가 못된다. 학자라면 자기 길을 걸을 줄 알아야 한다. 또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내가 그 각오를 세운 것은 김동화 박사의 <불교학개론>을 통해서다. 이 책을 읽으니 그 체계적인 구성과 내용들은 내 불교지식

의 편린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듯 했다. 나는 '세상에 이런 불교가 있나' 하는 환희에 가득 찼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달달 외었다. 그렇게 책을 통해 그리던 분을 나는 3학년이 돼서야 강의를 통해 만났다. 김동화 박사를 보고 나는 바로 이 분을 스승으로 삼겠다고 결심했다.

박사과정 때다. 은사인 김 동화 박사 옆에서 읽고 교정 등을 도우며 공부했다. 김 박사를 모신 내 정성을 두고 주위에서는 나를 김동화 박사의 화신이라고 할 정도였다.

“‘불교학 개론’ 달달 외우며 ‘환희’ 바닥까지 훑는 완전한 공부 풍토 필요”

하지만 생계가 어려웠다. 당시 교법사 제도가 처음 생긴 터라 잠시 교법사를 해야겠다고 김동화 박사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했다. 그런 나를 김동화 박사는 극구 만류했다. 그동안 의식주 해결하고 돌아와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학자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는 안된다. 배고플 때는 허리를 굽고 집근 돌아 매고 하라.” 그래서 나는 다른 아르바이트 없이

오로지 공부만 했다. 그런 내게 김 박사는 <유식학> 대강을 배려했고, 다음 학기 바로 정식 강사가 될 수 있었다.

故 황성기 박사 작고 후 <구사학> 강의도 맡게 됐다. 소승불교를 집성한 것이 <구사론>이다. 공부를 해보니 경전은 경전대로 진리를 머금고 있지만 논전은 시대에 맞춰 그 함의된 뜻을 재해석한 것이었다. 경전이 원리라면 그 원리를 이론화하고 체계화한 것이 논전이다. 경전마다 설법의 핵심은 마음이었다. 마음을 뒤희려면 이론을 알아야 제

인용해 선사상을 증명리 했다. 내가 중국 '현장학회'에서도 발표했지만 원효의 선은 육조 혜능의 선보다 20년이 앞선다. 교리적으로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 조계종이 보우·지눌을 둔 논쟁 속에 중국 선종의 맥을 이었다고 하나, 나는 한국의 선은 원효의 선이라고 주장한다. 선맥을 바로 세워야 민족자긍심이 찾아진다. 또 한국불교가 세계화하기 위해서 철저한 교리로 무장돼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유식이 어렵고, 원효가 어렵다 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학문은 전체를 아울러야 한다. 저인망식으로 바다까지 훑어야 완전한 공부가 된다. 하지만 연구 풍토는 이것저것 부분적으로 필요부분만 따다 보니 결국 공부가 어렵다는 말이 그치지 않는다. 결국은 시절 나는 원효의 변뇌론이 정리된 <이장>을 번역했다. 글자를 푸는 것에만 집착했던 나는 글로는 풀었지만 그 뜻을 전부 풀지는 못했다. 읽는 이마다 난해하다 했다. 번역한 내가 봐도 어려웠다. 진정한 번역은 철저히 공부해서 내가 이해하고 남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유마경>에 “부처님은 언제나 같은 말로 설법하지만 중생들은 근기마다 달리 이해한다”(불이일언설법佛以一言演說法 中생수류각득衆生隨類各得解)했다. 제대로 된 공부는 이래야 한다. 예전에는 논문을 어렵게 썼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쉽게 써졌다. 자기 자신부터 바로 말아야 쉬운 글, 대중적인 글이 나온다.



반야는 마음의 진여(眞如)다. 피안에 이르러 부처가 된다는 가르침이다.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법보이다. 절 짓는 건축불사보다 보다 많은 이에게 불교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최고공덕이며, 이것이 보살이다. 소승은 자리행을 통해 성문연각에 이르지만, 대승보살은 이타행을 한다. 이타행을 잃으면 성불할 수 없다. 이타행을 모르는 것은 불교를 모르는 것이다. 연기는 다른 말로 공존과 공생이다.

유식은 업을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불공업과 대중과 함께 짓는 공업으로 나뉜다. 공업이 약하면 약한 세상이고, 선이면 좋은 세상이니 공업을 선하게 해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타행·보살행이다.

정년퇴직 후 1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반야심경>을 연구한다. 처음 <여섯불교>에 1년만 연재하며 정리하다보니 자료가 무궁무진하게 나왔다. 그래서 <속장경>에 있는 반야경을 연구했다. 지금은 용수보살의 <대반야경>에서 채집된 <반야심경>을 정리하는 중이다. 한평생 학자로 살며 깨달은 것 중 하나가 학문의 현묘함이다. 책상에 앉아 있을 수록 궁리할 것이 생기고, 글자를 파면 답수속 계속해서 나온다. 이제 내게 남은 바램이 있다면 <반야심경> 정통 해설서를 남기고 싶다. 계속해서 원효의 저술을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고도 시간이 남는다면 <불교학개론>을 쓰고 싶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재) 대한불교진흥원

2008학년도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서울, 부산]

불교대학 최초 명상학과 개설 / 대학원 과정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개설 / 법사과정(3년제)신설
 2008학년도 입학생 전원에게 50% 장학 혜택이 주어집니다

모집 과정

- 대학 과정(서울·부산)
 - ◇ 입문과정(부산): 주간, 야간 각 00명
 - ◇ 불교학과(서울·부산):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 ◇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서울·부산):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 ◇ 명상학과(서울·부산):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 대학원 과정(서울·부산)
 - ◇ 불교학과(서울·부산): 야간 00명 [주 2회 출석]
 - ◇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서울·부산):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 법사 과정(서울·부산)
 - ◇ 법사과정(서울·부산): 주·야간 00명 [3년제, 주 2회 출석]

강의 시간 ●주간 - 오후 2시부터 4시 40분까지 ●야간 - 오후 7시부터 9시 40분까지

지원 자격

- 대학 과정: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자(일반 분자 및 직장인 환영)
- 대학원과정: 불교학과 - 불교 교양 대학 졸업자 및 해당학력이 인정되는 자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 상담학과 졸업자, 상담심리과정 이수자
- 법사과정: 불교전법활동을 원하는 자. 포교원, 사찰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제출서류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전형 일정 ●원서교부 및 접수: 2007년 12월 1일 ~ 2008년 3월 31일

●입문·대학·대학원 전형: 서류 전형

입학식일시 ●부산대원불교대학: 2월 23일(토) 오후 2시 대원불교대학2층 큰법당

●서울대원불교대학: 2월 24일(일) 오후 2시 다보빌딩 3층 다보사 큰법당

※ 전화 신청 시 입학원서 및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 등록금 납부 시 카드 결제 및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학과목 소개

- 대학과정
 - ◇ 불교학과: 불교개론, 인도불교사, 불교의식의 이해, 초기불교의 이해, 반야사상, 부파불교의 이해, 불교경전 강독, 유식사상, 중국불교사상, 정토사상, 화엄사상, 선사상, 한국불교사상.
 - ◇ 명상학과: 불교명상학의 이해, 종교명상학의 이해, 선의이론, 명상교수법 명상학연구, 간화선의 이해, 위빠사나수행의 이론과 이해, 인도불교명상의 이론과 이해
 - ◇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불교와 심리, 상담의 실제, 상담심리학의 기초, 집단상담의 실제, 성격심리학, 불교개론, 초기불교의 이해, 반야사상, 불교와 마음치료, 불경과 상담, 발달심리학, 상담실습, 심리평가, 유식사상, 화엄사상
- 대학원과정
 - ◇ 불교학과: 초기불경강독, 중관학연구, 부파불교연구, 정토사상연구, 초기불교연구, 유식학연구, 대승불전강독, 화엄사상연구
 - ◇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상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상담면접 및 실습 집단상담실습, 심리검사, 상담자교육, 인지치료 및 이해, 청소년상담 및 실습
- 법사과정
 - ◇ 불공의식, 정례의식, 사찰승의, 설법연구, 설법이론, 설법실수 사찰경영론, 신도관리론, 중우행정론 외

교수 소개

- [불교명상학과 및 법사과정]
 - ◇ 해 거 스님: 금강선원장
 - ◇ 정 영 스님: 동경대박사,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
 - ◇ 송석구 교수: 전 동국대 총장, 철학박사
 - ◇ 김홍렬 교수: 고려대 명예교수, 남명학연구원 원장
 - ◇ 조성택 교수: 고려대 철학과교수
 - ◇ 윤원철 교수: 서울대 종교학과교수
 - ◇ 허경구 교수: 인도바리나시힌두어대학교 박사과정수로
 - ◇ 김사업 교수: 일본국립경도대학교 박사과정수로
-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 ◇ 전현수교수: 전현수신경정신과원장
 - ◇ 심지은교수: 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수로
 - ◇ 김은희교수: 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수로
 - ◇ 권경희교수: 연세대 교육대학원상담교육 전공, 상담전문가
 - ◇ 미 산 스님: 중양승가대교수
 - ◇ 지 장 스님: 대원정사주지, 초의차량성원장
 - ◇ 김용정 교수: 동국대명예교수, 철학박사
 - ◇ 권기종 교수: 동국대명예교수
 - ◇ 김항배 교수: 동국대 철학과교수
 - ◇ 정휘숙 교수: 일본중경대학교인도철학과 석, 박사
 - ◇ 최봉수 교수: 동국대학교대학원 석, 박사과정졸업
 - ◇ 김재성 교수: 일본동경대학교대학원 석사과정졸업

특 전

- ◇ 법사과정 졸업 후 법사고시에 응시, 합격자에 한하여 법사수료증을 수여
- ◇ 불교전문심리상담사 1.2급 자격증부여 ◇ 명상전문지도사 1.2급 자격증 부여

문의

◇ 서울: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3층 / 전화 02)707-1072, 706-1571

◇ 부산: 부산 금정구 장전동 382-3 / 전화 051)583-7811

Daewon never sleeps

◎ 대원불교대학·대학원